

“부처님오신날 기쁨의 축제로”



광덕사 해인정사 염불선원 개원

“부산의 새 수행 구심점 탄생”



정기적인 법문으로 신도위한 수행처 조성

4월 18일 부산 금정산 아래 구서동에서 잔치를 연상케 하는 개원법회(사진)가 열렸다. 부산의 새로운 구심점이 탄생한 것을 축하하며 모인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제주 약천사 회주 해인 스님이 광덕사 해인정사 염불선원을 개원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법문을 하며 신도들을 위한 수행처로 삼을 것을 약속한 것. 또한 법문을 위한 법사비도 받지 않으며 원하는 이는 누구나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열린 선원, 청정 선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원을 밝혔다.

“그동안 법사비를 받아 불사에 도움을 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법사비를 받지 않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돈을 안 받고 하는 법문이 참 법문 아니겠습니까? 운영이 되고 안 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사찰에서는 법사스님을 모시고 싶어도 법사비를 걱정합니다. 법사비, 기도비 걱정 없이 마음껏 수행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회주 해인 스님은 운영 원칙을 이와 같이 밝혔다.

“이와 같은 운영 계획이 나온 동기 또한 오직 수행입니다. 각 행사를 위해 마련하는 법문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부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꾸준한 법문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점검도 필요합니다. 한 번 듣고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인제든 부담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 집처럼 생각하고 자주 오세요. 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참회하시고 부처님 법문이 듣고 싶다면 법을 청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싶으면 마음 편히 오셔서 기도와고 독경하고 정진하셔서 여러분의 의지처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램은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와서 될 수 있으며 편히 기도할 수 있는 곳. 불자들을 위한 의지처가 되겠다는 것이다.

해인 스님이 이끌어갈 법회의 공식 명칭은 ‘부부법회’이다. 치마 불교, 노인 불교에서 탈피하여 더욱 성장해야 한다는 것.

“남편과 함께 오십시오. 남편이 없으면 남자친구라도 데리고 오세요. 치마불교, 노인불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법문이 좋으시다면 남편에게도 권유해서 들도록 해야지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염불선원은 6월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정기적인 법회를 회주 해인 스님과 함께 시작한다. 또한 생활 불교화를 위해 모든 의식과 독경, 염불을 한글로 풀이해 알기 쉽게 진행하며 사경 공부 등을 통해 수행 정진하도록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051)517-9008

하성미 기자



부산 각 사찰에서 다채로운 불축행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제등행렬 모습.

에서 강릉 성원사 주지 주경 스님을 초청해 대법회를 봉행한다. 기장불교사암연합회(회장 초삼, 011-9042-7799)는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기장군청 전시관에서 ‘나누는 자비 따뜻한 손길’이란 제목으로 선화 및 찾그릇 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3일 오후 4시 개최하는 불축법요식에서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불우이웃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부산·경남 각 사찰에서 다채로운 행사 열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경남 각 사찰에서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055-382-7182)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공연과 통도사를 만끽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한다. 5월 2-12일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 앞 솔밭 주차장 및 통도사 일대 길을 불빛 거리로 조성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왕벚꽃 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을 다시 심어 아름답게 조성한 장소를 지역민들과 나누자는 취지다. 5월 11일 오후 1시에는 일본 정행사를 초대하여 ‘아악(雅樂)공연’과 불교무용을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아악 공연은 중국의 경극과 비슷하게 진행되며 음악과 연극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12일 법요식은 오전 9시 30분에 봉행하며 점등식은 오후

7시이다.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051-508-0345)는 5월 1일 오후 7시 흥법사 청년회에서 직접 만든 장엄등 점등식을 개최한다. 올해 제작한 장엄등은 작년에 조성한 삼존석불의 모양을 보고 만들어 귀엽고 새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유아기 때 출가 경험을 통해 불교에 대한 바른 개념 획득과 심성을 순화해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21일간의 제4기 흥법사 동자승 단기 출가’를 실시한다. 4월 23일 출가 입재식을 마친 동자승들은 23일부터 28일 동안 행사 생활을 거친 후 29일 삭발 수계했다. 5월 12일 환계식에서는 그동안의

수행을 점검하고 저녁 발우공양 모임을 일반에 공개한다. 이에 앞서 12일 오전 10시 법요식과 성인마을 상화 수계식을 봉행한다. 외국인들도 신청한 수계식과 함께 사진, 조각보, 사경 등 다양한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 052-251-4602)는 12일 오전 10시 불축 불공 및 법요식을 시작으로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사생대회를 오후 2시 개최한다. 또한 신도들이 참가해 직접 만든 등을 심사하는 ‘예쁜 등 경연대회’ 및 ‘작은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인재개발원(051-853-8539)은 7일 오후 7시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

초파일 맞아 학생들도 수행

부산 금정中 108배씩 100일 정진

불축을 맞아 부산의 종교학교 학생들이 수행의 물결을 만들어 화제다. 부산 종립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재)는 3월 10일부터 108배씩 총 10800배를 목표로 100일기도 율령 정진 중이다.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2시 50분부터 학생 100여명이 학교 법당 법아원에 모여 발원문을 시작으로 108배, 정근, 사후서원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정중학교 이석연 교감은 “학생들이 계속해

서 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지만 함께 절을 이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매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학생은 40여명이 넘으며 최대 120여명이 참석해 높은 참여율을 보여 주고 있다. 1학년 차태현 학생은 “집중력도 좋아졌고 불자이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꼭 절수행도 하고 싶었는데 참가할 수 있어 기쁘다”며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산 해동고등학교(교장 강석표)에서는 불축을 맞아 봉사를 통한 보시행을 실천한다. 5월 7일 해동고 학생 23명은 천마재활원 장애인 9명과 일반 장애인 8명과 함께 ‘장애인고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실시한다. 본 문화체험은 오전 8시부터 통도사 경내 순례와 통도사 서운암 들꽃 구경 및 통도 환타지아에서의 놀이 시간으로 구성되며 30~40대 장애인고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이다. 9-10일에는 생명나눔 실천운동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와 공동으로 후원을 위한 홍보 캠페인에 동참해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500원의 희망’ 두송복지관

부산 사하구 두송종합복지관대표 이사 지현은 최근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500원의 희망선물’ 사업을 실시했다. ‘500원의 희망 선물 프로젝트’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삼성화재RC가 공동으로 장애인 가정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500원의 적립금을 모아 활용한다.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황인춘(60)씨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넓은 방과 책상이 생긴 것이 너무 좋다”며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황씨는 4월 23일 가족과 함께 새롭게 바뀐 집에 입주했다. **하성미 기자**

5월 7~8일 용호장승축제

용호종합복지관(관장 이춘성)은 5월 7~8일 지역민들의 건강과 주민 화합을 위한 ‘제5회 용호장승축제’를 용호복지관내 너른 앞마당에서 개최한다. 5월 7일 오후 2시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재를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 저소득 독거 어르신 20여분을 모시고 장수축제를 연다. 8일 오전 11시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 1000여명과 함께 공연 및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孝心잔치’를 개최하고 오후 3시부터 어울림 한마당도 준비한다. (051)628-6734 **하성미 기자**

생명나눔 부산 첫 기증자

범어사 포교원 금정선원(선원장 대경) 신도 조수연(57·여)씨가 4월 14일 생을 마감하며 자신의 시신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에 기증했다. 시신은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의대생 연구와 해부 실습용으로 생명분을 구하고자 하는 일에 기증했다. 조수연씨는 올 1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에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했으며 부산지역본부 창립 이래 정식 등록자의 시신이 실제로 기증된 첫 번째 사례이다. **하성미 기자**



서운암 들꽃 향연 펼쳐져

양산 통도사 서운암(주지 성파)은 4월 25~30일 제7회 서운암 들꽃축제를 개최했다. 서운암 일대 100만여㎡의 들꽃 군락지에 조성된 할미꽃, 대청, 조판나무, 금강화 등 1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들꽃들이 선보인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기간을 4일 연장해 진행했다. 축제기간 동안 축하공연과 연꽃사진전, 시화전, 그림전 등의 볼거리와 차시연회도 함께 열렸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해명과 조계종 중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파와 불자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도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무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功德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9999

원불봉안, 탕화, 수미단, 닻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